

후원자 참여와 아동 참여를 둘러싼 딜레마: 개발 NGO의 일대일 아동 결연 프로그램

노재은*

초록

'참여'는 개발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 NGO는 비교적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주체라고 기대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놓고 보면 참여의 양과 질이 상이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히 개인 후원자와 프로그램 수혜자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나마 정보통신 기술 발에 힘입어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개인 후원자의 참여 증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NGO의 노력이 때로는 프로그램 수혜자의 참여 제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고는 개인 후원자와 프로그램 수혜자의 참여를 둘러싼 딜레마를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 결연을 선택한 이유는 선진국의 개인 후원자와 개발도상국의 수혜자를 연결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양측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며, 최근의 인기에 비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인 후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재의 결연 방식이 후원 아동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참여의 갈등 양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NGO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인권 원칙에 준한 근본적인 변화만이 참여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한다.

주제어 : 아동 결연, 참여, 개인 후원자, 개발도상국 아동, 인권

*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개발학 박사 과정 (jaeeun170@gmail.com). 본고는 박사 논문의 일부가 아님.

I. 서론

‘참여’는 국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개발 주체 중 특히 NGO는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기에 적합하다고 많이들 인식된다. 이는 NGO가 이타주의와 현지 주민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타 주체들과 비교해 강점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Ditcher 1999; Hudock 1999; Lewis 2003). 그렇지만 NGO 프로그램 운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놓고 봤을 때, 참여의 원칙이 불균등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나 정부 같은 후원 기관의 참여는 ‘기금 사용에 대한 책무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파트너 기관들의 참여는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크게 신장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 후원자와 프로그램 수혜자의 참여는 아직도 요원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나마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후원자의 참여는 정보에의 접근 용이성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Ashford 2009).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개인 후원자들이 NGO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쉽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Hart 2002). 개인 후원자의 참여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본고는 개별 후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NGO의 방안이 개발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참여를 저해시킬 수도 있음을 아동 결연프로그램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모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후원자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국가의 수혜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개발 NGO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결

연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 수로 봤을 때는 약 800만-1,200만 명의 아동이, 모금액 기준으로는 매년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atson & Clarke 2014). 이와 같은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규모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연에 대한 학술연구는 놀라우리만치 미진하다. 더구나 NGO의 결연 관련한 자료는 대부분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 조사, 국제 개발 NGO들의 웹사이트, 그리고 국내외 NGO에 대한 제한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한된 자료 접근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아동 결연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에 주목하고 이를 개인 후원자, 후원 아동 양 측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아울러 NGO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왜 아동 결연인가?

아동 결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이 1932년, 플랜 (Plan)이 1937년에 현재의 형태와 유사한 아동결연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자국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결연의 역사는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아동 결연을 통한 NGO의 후원금 모금은 더욱 확대되었다 (Watson & Clarke 2014). 이처럼 개발담론, 이론, 실천 방법의 무수한 변화에도 아동 결연은 그 오랜 시간 계속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 인기의 이유를 후원자 측면과 NGO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개인 후원자의 아동 결연 선호 요인

개인 후원자들이 아동 결연을 선호하는 이유는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결연'은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인간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성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대상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 (Fowler 1992). 만성적인 빈곤의 문제는 대개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소액 기부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한 명을 원조하는 일, 게다가 그 한 명이 연약한 한 아동일 때에는 자신들의 기부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개발 NGO들이 후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구를 보면 후원자의 이러한 심리에 호소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의 삶을 바꿔 주세요.” (World Vision n.d.), “이 아이의 미래를 바꿔 주세요.” (UNICEF n.d.),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Plan n.d.), “당신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됩니다.” (Compassion 2014) 와 같은 문구가 눈에 띄는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당신의 기부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후원자들은 자신의 소액 기부로 가치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 한 연구도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를 기부 동기 중 하나로 제시한다 (Sargeant & Shang 2011). 또한 “이 아이들의 또 다른 부모가 되어 주세요.” (UNICEF n.d.),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World Vision n.d.)에서 보듯, NGO는 종종 ‘부모’, ‘가족’ 같은 메타포를 사용한다. 이는 모성애, 부성애와 같이 강력한 관계의 정서에 호소하기 위함이다 (Watson & Clarke 2014). 이와 같은 마케팅 언어는 특히 중년 여성의 보살핌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uyen 2012).

게다가 아동은 전통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해된다.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미지에 기존의 만성적 빈곤과 내전 말고도 안보를 저해하는 위협 요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추가되면서 이들 국가 원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다 (Duffield 2001; Vaux 2006). 그렇지만 여전히 아동은 무고한 피해자로 인식된다. 이처럼 아동의 이미지를 순수성과 결부시키는 경향 또한 아동 결연을 촉진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Watson & Clarke 2014).

또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다른 방식의 기부보다 후원자에게 더 큰 심리적 만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플랜(Plan)과 컴패션(Compassion)은 아동 결연의 장점으로 정기적인 현황 업데이트와 아동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꼽는다 (Plan n.d.). 이와 같이 아동의 감사 서신이나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보고서, 그리고 서신 교환은 개인 후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간 후원을 가능하게 한다 (McGrath 1997). 즉 여타 개발 프로그램보다 더 잦은 빈도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심리적 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결연 기간을 지속시킨다.

앞서 언급한 심리적 요인 외에도 아동 결연의 소액 자동 이체 시스템 덕분에 후원자들은 거액 기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낀다 (Carr et al. 1998). 그러나 이는 아동 결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거액의 일시 후원이 아닌 소액의 정기 후원, 그리고 매달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자동 이체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아동을 후원하는 비용은 매월 월드비전이 35달러, 플랜은 22유로, 컴패션이 38달러이다. 이 정기 후원금은 매달 통장이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후원자가 매달 후원금 납입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 NGO의 아동 결연 선호 요인

아동 결연은 NGO 측에서도 선호하는 모금 방식이다. 실제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외 광고 및 후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Smillie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매달 예약 이체되어 기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기금 사용 면에 있어서도 제약이 덜하다 (Fowler 1992). NGO 수입의 또 한 축인 정부 기금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 기금은 단기간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산 항목 및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다. 정부 기금과 달리 아동 결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예측 가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수입이므로 NGO 입장에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Plan 2008). 아동 결연은 모금 조성 방법으로서의 그 효과성 또한 월등히 높다. 캐나다 NGO의 예를 보면 아동 결연 NGO 상위 세 개 기관의 모금액이 비결연 NGO 상위 세 개 기관 모금액의 열 배가 넘는다 (Bell & Coicaud 2006).

NGO들은 또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국제 개발의 주요 화두와 연결 지어 정당화한다. 한 예는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다. 이 MDGs 중 상당수 목표가 아동 관련 해 설정되어 있다 보니 NGO들은 아동 결연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MDGs 달성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홍보해 왔다 (Watson & Clarke 2014). 또 다른 예는 아동 결연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 개념에 부합한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민은 글로벌 사회의 상호 연관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차이에 대한 존중과 글로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이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를 뜻한다 (Davies 2006; Merrifield 2001; Osler & Starkey 2005; Parekh 2003). NGO들은 아동 후원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민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NGO들은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독립성, MDGs 달성과 글로벌 시민 의식 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그 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유지,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 결연은 많은 개발 NGO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자 주 수입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예를 들어 캠페션¹⁾, 월드비전²⁾, 플랜³⁾은 아동 결연이 주 수입원인 대표적인 단체들로서 그 비중이 전체 수입의 약 50%를 상회한다. BBC는 아동 결연을 통해 조성되는 모금액은 영국에서만 연간 약 18억 파운드라고 보도한 바 있다 (Buchanan 2011). 이러한 수치는 아동 결연이 결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후원자와 아동뿐만 아니라 개발 NGO에게도 중요한 프로그램임을 보여준다.

-
- 1) 2014년도 캠페션 연간 보고서를 보면 총 수입 719,291,375 달러 중 기부금이 491,846,225 달러로 68.3%이다. 이 기부금 중 아동 후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 아동 결연으로 인한 수입은 확인이 어려우나 대부분의 기부금이 결연에서 나온 것이라 추정된다.
 - 2) 2014년도 월드비전 연간 보고서는 총 수입 1,038백만 달러 중 개인 현금 후원이 600백만 달러라고 밝히고 있어 그 비중이 57.8%이다. 그렇지만 개인 현금 후원의 상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 캠페인, 긴급구호에 대한 성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3) 2014년도 플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 722백만 유로 중 아동 결연 프로그램으로 조성된 수입이 354백만 유로로 49%에 달한다.

Ⅲ. 참여의 불평등

개발학 문헌에서 '참여'에 대한 정의 자체는 다양하지만, 참여를 논할 때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과 참여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는 PRA(Participatory Rural Appraisal)와 PLA(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가 대표적인데, 공통적으로 현지 주민의 직접 참여와 외부인의 사고방식, 행동 및 태도 변화를 중요하게 꼽는다 (Chambers 1994; 1997). 참여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에의 접근 및 제공, 프로그램 활동에 관여, 협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자발적인 행동 조직'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Ebrahim 2003a). 콘웰(Cornwell 2008)은 정보 및 자원의 단순 제공을 의미하는 첫 두 종류의 참여는 '미약한 참여, 가짜 참여 (pseudo participation)'라고 보고, 후자의 주체적 의사 결정 및 주민 행동을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 부르며 구별한다.

이러한 참여의 구분을 본고에 적용했을 때, 개인 후원자들의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후원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매월 후원금을 납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 및 후원 아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해당 부서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청구하고 결연 프로그램 혹은 단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비록 참여의 마지막 단계인 조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 후원자의 특정 의견이 다수에 의해, 혹은 반복 제기될 때 NGO들은 반응을 모색하게 된다. 후원자들이 NGO에 대한 후원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후원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NGO의 주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물론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프로그램 전 단계에 걸쳐 참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그렇지만 아동 결연의 양 측면 개인 후원자와 후원 받는 아동을 놓고 봤을 때 참여의 양과 질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본고는 개인 후원자 참여 확대를 위한 NGO의 노력이 후원 받는 아동의 참여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 후원자의 참여 확대란 결연 프로그램 후원자 수 증대와 프로그램 내에서의 후원자 목소리 및 활동 증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인 후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NGO의 방안이 어떻게 후원 받는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제한하는가를 아동 결연 프로그램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역과 아동 선정 단계

우선 개인 후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참여할 지역과 아동 선정에 제약이 따른다. 한 예로 월드비전은 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시, 커뮤니케이션과 교통편에 제약이 없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김성호 2009). 이는 사실상 원거리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에 사는 취약 아동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선정되었을 때에도 이동성이 높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은 결연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Plan 2008). 이 또한 개인 후원자와의 지속적이고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 결과이다. 부가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아동들이 바로 자신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바로 그 조건 - 원거리 지역이나 고립 지역 거주, 높은 이동성, 학업 중단 - 때문에 아동 결연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다. 즉, 아동과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결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2. 아동 후원 독려 광고

잠재적인 후원자들은 대부분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결연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 때 광고에서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통 비참한 가난의 모습을 한 아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NGO들이 개발도상국 아동의 이미지를 팔아 잠재적 후원자의 시선을 끄는 마케팅 전략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모금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빈곤 아동의 사진을 게재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아동 인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똑같은 인권 기준이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이들 개발도상국 아동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묵인되어 오곤 했다. 이는 한 아동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만성적 빈곤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 무력감과 죄책감을 덜 느끼도록 함으로써 후원으로 유도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Carr et al. 1998).

지속적으로 개별 아동의 비참한 이미지에 노출되다 보면 대중은 빈곤을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아동 결연의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개발도상국의 아동을 자비와 기부의 대상으로, 선진국 후원자를 구원자로 만들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대중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광고 전략은 빈곤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담고 있는 용어가 바로 '빈곤 포르노 (poverty porn), 기아 포르노 (hunger porn)'이다 (Gurbin 2008). 이는 빈곤을 부각시켜 상업적 효과를 보려는 NGO의

마케팅을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 아동 결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의 중심에서 있는 마케팅 광고 대부분이 후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후원자의 결연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3. 후원할 아동 선택 단계

위에서 언급했듯이 빈곤의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묘사로 잠재적 후원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들로 하여금 후원할 아동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월드비전, 컴패션, 플랜 등 대표적인 아동 결연 NGO의 홈페이지를 보면 결연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들에 대한 정보 - 성별, 나이, 지역, 에이즈 감염 여부, 심지어 사진을 게시해 외모까지 - 를 제공해 개인 후원자가 아동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흡사 온라인 쇼핑몰을 연상케 하는데, 이를 두고 NGO들은 이러한 정보 제공은 후원자들의 '선택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원 대상인 아동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상품으로 전락한다. 아동들은 선택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빈곤하고 비참한가를 광고해야 한다. 더욱이 제공되는 정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항상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개인 후원자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장애 아동,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아동, 심지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동을 걸러내기도 한다. 이는 장애, 나이, 피부색 등의 외모가 아동의 입양을 늦추는 요소라는 연구(Rosenthal 1993)를 감안하면, 개인 후원자들이 후원의 필요도가 아니라 입양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자신이 돌보고 싶은 아동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 후원자의 참여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선

택 방법은 아동을 물물교환을 위해 진열된 상품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비인간화된 아동에 대해 참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4. 결연 프로그램 진행 단계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개인 후원자와 후원 받는 아동 간 이루어지는 교류이다. NGO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서신 교환 외에도 개인 후원자가 후원하는 아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문 시기나 선물의 종류는 당사자인 아동과 의논하지 않고 후원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후원 아동에게는 정기적으로, 혹은 선물이나 편지를 받은 후 감사 편지를 써야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감사 서신을 쓰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작 당사자 아동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가령 많은 비영어권 국가의 아동들은 단순히 배운 대로 영어 문구를 베껴 쓸 뿐이다 (Buchanan 2011). 후원 아동이 후원자에게 선물을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프로그램 담당자가 편지 내용을 검열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자신을 후원하는 후원자와의 교류에서 정작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

한편 아동들은 처음에 후원자가 생김으로써 가졌던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족스러움을 경험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자가 지닌 개별적인 관계를 쌓고 싶은 욕구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후원자들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외에 특별히 더 아동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 후원 아동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아동들보다 값어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질투와 실망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Plan 2008). 이는 상호적인 관계에 기반한다는 결연 프로그램의 취지와 달리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쌍방이 다를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후원 받는 아동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후원자의 경우 결연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때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후원받는 아동은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을 시 불만족을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기란 쉽지 않다.

5.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단계

일단 결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연구 및 NGO 자체 조사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 후원자와 후원받는 아동이 결연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 아동, 그리고 그 아동들의 지역사회에 그다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이 개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도넬 (McDonnell & McDonnell 1994)이 실시한 영향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연 아동이 비결연 아동보다 웰빙 (Well-being) 지수가 높으며 그 차이는 결연 직후가 가장 크다. 이를 두고 맥도넬은 결연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해석했으나, 이 조사 결과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이 결연 아동과 비결연 아동을 차등 지원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결연 아동에 대한 지원도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갈등을 조장한다 (Bornstein 2001). 결연 아동은 아동대로 후원자들에게 선물을 받

는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원조 체계에서는 배제되기도 한다 (이선재 2010). 이는 아동의 결연 프로그램 참여가 또래 집단과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배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별화된 접근을 취하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이 지닌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장을 요약하자면, 개별화되고 후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아동의 참여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참여라는 원칙이 무색하게끔 결연의 한 축인 아동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 개인 후원자들의 시선을 붙잡고, 이들에게 선택의 권리와 지속적인 정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O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품성이 없는 아동들은 배제되고 선택된 아동들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개인 후원자들이 NGO로 하여금 현재의 같은 방식으로 결연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후원자 발굴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NGO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후원자와 후원 아동의 참여를 둘러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NGO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NGO의 해결 방안 모색

1. 개별 아동이 아닌 지역사회 지원

NGO들은 내부 성찰과 외부 비판을 통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태생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한 아동의 웰빙은 그 가족, 지

역사회, 더 광범위한 사회구조와 별개로 기능하지 않다. 따라서 개별주의에 입각한 아동 결연의 한계는 자명하다. 이게 바로 최근 NGO들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지역 개발의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제 많은 수의 NGO들이 개별 아동에게 현금이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후원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지역개발 프레임워크로의 전환 필요성은 1980년대 '통합적 지역 개발(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1990년대 '아동 중심 지역개발(child-focused / child-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로 이어졌다(Watson & Clarke 2014, 218).

이는 개별화된 접근 방식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여전히 비판의 소지는 남아 있다. 지역 개발로의 전환이 후원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후원 아동들을 단순히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이다. 후원금 사용 방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후원자들이 자신들이 낸 후원금이 개인 아동에게 직접 지원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기존 후원자나 신규 후원자에게 그들의 후원금이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쓰임으로써 후원 아동에게는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기존의 개별화된 접근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통해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을 그저 모금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아동과 그 가족들이 직접 지원이 아닌 지역개발을 통한 지원이라는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현재의 아동 결연 후원금을 지역 개발에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개별화된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2. 모금을 통한 인식 제고 노력

앞서 논했듯이, NGO가 아동 결연을 통한 모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제약을 받지 않는 기금의 확보이다. 따라서 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모금 수입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NGO들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 결연 프로그램의 전제인 개인 후원자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면 어떨까? 개인 후원자는 권리보다는 자선에 호소하는 언어에 더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 가정 중 하나이다. 따라서 NGO들은 동정심과 긴급성이 아닌, 권리의 언어를 채택하는 것이 후원 감소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Harris-Curtis 2003; Nyamu-Musembi & Musyoki 2004; Panitch & Leys 2003). 그렇지만 호주 NGO들의 경우, 자선보다 권리옹호 활동을 강화했을 때 개인 후원자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Rugendyke 2007).

다른 가정은 바로 후원자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한다는 것이다.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부만 부탁하는 것은 후원자로 하여금 원조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Carr et al. 1998). 그렇지만 기존의 결연 프로그램 방식으로는 결국 후원자에게 긍정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변화를 보고하기 힘들다. 더구나 후원자들이 후원 여부와 후원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이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 (Edwards & Hulme 1996). 따라서 NGO가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Frumkin & Kim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 후원자들의 기대와 욕구가 근시안적이라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후원자들의 선호도, 태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따라서 NGO들도 후원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후원자들의 변화를 위해 현재의 모금 전략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는 많은 NGO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후원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로 묘사해 왔다 (Carr et al 1998). 아동 결연 홍보 시 주된 메시지는 바로 '당신이 주기만 하면 이 아동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NGO들은 개발도상국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하는 이런 광고 대신, 후원 대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후원자의 기대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Davies 1997).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중개 NGO로서, 그 역할이 단순히 후원금을 요보호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NGO의 역할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개발도상국 아동의 이해 관계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후원자들을 설득해내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NGO들은 후원자 평계를 대며 구태의연한 모금 방식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모금을 주창(Advocacy)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인권 기준에 준한 참여 보장

다시 '참여'의 원칙으로 돌아가 NGO들이 진정한 의미의 참여를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체 조직 문화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중 약자의 참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담보할 기관의 절차를 만들지 않는 이상 보장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채택이 인권 기준에 준해 참여라는 원칙의 가치를 복구하고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Ife 2002). 참여의 원칙은 '권능화(empowerment), 책무성

(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국제 인권 규범과의 연결(linkag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과 함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이다 (Boesen & Martin 2007, 15; OHCHR 2006, 16-17). 기존 접근에서는 참여의 원칙이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정보, 즉 수혜자 욕구와 클라이언트 선호를 사정하는 데 적용되었다면,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창하고 나아가 기존 권력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적 운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참여의 원칙이다 (Nyamu-Musembi & Cornwall 2004). 이러한 차이는 아동 결연 프로그램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현재 아동 결연에서의 참여는 NGO가 아동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후원자들의 선택과 관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받아들이면 가장 취약한 이해관계자인 아동의 목소리와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게 된다.

실제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받아들인 NGO들과 달리 자선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에 주력하는 NGO들은 프로그램 수혜자들보다는 후원자들의 목소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Edwards & Hulme 1996; Ebrahim 2003b). 또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야말로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아동 및 지역사회 양 쪽 모두에 변화를 일으켜 진정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능하게 한다 (Power et al. 2002).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했을 때 개인 후원자들의 역할은 후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주창자 (Advocate), 운동가 (Activist)'로 확대될 수 있다 (Watson & Clarke 2014). 그리고 후원 아동 및 지역사회는 단순히 후원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 나아가 지역사회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한 NGO들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가능한가를 알 수 있다. 액션에이드(ActionAid)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1998년에 받아들인 이래 개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기관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체이다 (Gready 2013). 액션에이드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아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결연 아동을 후원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연 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존 아동 결연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보여 준다 (ActionAid n.d.). 액션에이드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1995년의 아동 권리 협약을 준거로 삼아 만든 아동 보호 정책을 따른다. 이 보호 정책은 액션에이드 직원뿐만 아니라 현지 파트너 기관, 후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ctionAid 2009).

또 다른 예로 플랜(Plan)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아동 중심 지역 개발을 접목하고 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따라, 플랜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목표를 인권의 언어를 사용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Plan 2007). 특히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취약 아동(장애 아동, 노숙 아동, 에이즈 감염 아동 등)의 사회적 참여와 양성 평등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안 활동과 캠페인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플랜의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는 정작 아동 결연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액션에이드와 플랜의 예는 아직 인권에 기반한 아동 결연 프로그

램 (rights-based child sponsorship)이라기보다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받아들인 기관에서의 아동 결연 프로그램(child sponsorship in an NGO which adopted a rights-based approach)이라고 보인다. 즉,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아동 결연이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되었다기보다는 각각 개발 프로그램과 모금 프로그램으로서 별개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는 이에 따른 갈등이 존재한다. 가령 액션에이드에서는 아동 결연을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아동을 그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Archer 2011). 플랜의 경우도 아동 결연을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기존의 서비스 전달과 달리 사업 효과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안고 있다 (Watson & Clarke 2014). 이 두 기관의 사례는 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만났을 때 가능한 긍정적인 변화와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NGO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똑같이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했다. 이해관계자들 간 상이한 욕구가 갈등을 야기하고 NGO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해 개인 후원자와 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참여라는 원칙에 있어 취약하다고 본다.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개인 후원자의 참여는 증진시키는 반면, NGO가 수혜자들보다는 후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아동 결연 프로그램이 바로 개인 후원자와 수혜자 간 참여를 둘러

싼 딜레마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동 결연 프로그램은 개인 후원자들로 하여금 웹사이트에서 아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신 및 방문 교로의 기회를 열어 놓는 등 개인 후원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 결과 요보호 아동이 배제되거나 아동의 프라이버시,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에 개발 NGO들은 후원자가 후원 아동에게 최선인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의 원칙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수혜자의 진정한 참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액션에이드와 플랜, 두 NGO 사례가 보여주듯, 인권 원칙이 NGO의 성찰과 변화의 준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찰과 변화는 궁극적으로 NGO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발 NGO들은 종종 조직의 사명과 조직의 생존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본고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일수록 생존보다는 사명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명을 앞세울 때 비로소 NGO는 존재의 정당성,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수혜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길이야말로 NGO가 후원자와 수혜자 양 쪽을 다 잃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호. 2009. "국제개발사업 DME 개관: Design, Monitoring, Evaluation". ODA Watch 집중 워크샵. 7월 13일, 서울, 한국
이선재. 2010. "선의는 선행을 낳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창립 10

주년 기념 컨퍼런스. 11월 4일, 서울, 한국

ActionAid. 2009. "Child Protection Policy: One Stop Shop".

ActionAid. n.d. <http://www.actionaid.org>

Archer, D. 2011. "Developing a new strategy for ActionAid to advance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hur018.

Ashford, R. A. 2009. "Negotiating donor participation in the Sri Lankan educational sector".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3(3): 355-378.

Bell, D.A. & J.M. Coicaud, eds. 2006. *Ethics in Action: the ethical challeng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rnstein, E. 2001. "Child sponsorship, evangelism, and belonging in the work of World Vision Zimbabwe." *American Ethnologist* 28(3): 595-622.

Boesen, J. K. & T. Martin.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an inspirational guide for civil society*. Copenhagen: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Buchanan, E. 2011. "What's it like to be a sponsored child?". BBC June 10. http://www.bbc.co.uk/news/world-13697855#story_continues_1. (접속일: 2015.04.20)

Carr, S., M. MacLachlan, & E. McAuliffe, 1998. *Psychology of aid*. London: Routledge.

Chambers, R. 1994. "The origins and practice of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World development* 22(7): 953-969.

Chambers, R. 1997. *Whose reality counts?: putting the first last*. London: Intermediate Technology Publications Ltd.

Compassion. 2014. "2014 Annual Report". <http://www.compassion.com/>

multimedia/2014-annual-report-compassion-international.pdf

- Cornwall, A. 2008. *Democratising engagement: What the UK can learn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London: Demos.
- Davies, L. 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 58(1): 5-25.
- Davies, R. 1997. "Donor information demands and NGO institu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9(4):613-620.
- Ditcher, T. W. 1999. "Globalization and its effects on NGOs: Efflorescence or a blurring of roles and relevanc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4):38-58.
- Duffield, M. 2001. *Global governance and the new wars: the merging of development and security*. London: Zed books.
- Ebrahim, A. 2003(a). "Accountability in practice: Mechanisms for NGOs". *World Development* 31(5): 813-829.
- Ebrahim, A. 2003(b). *NGOs and organizational change: Discourse, reporting, and learn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s, M., & D. Hulme. eds. 1996. *Beyond the magic bullet: NGO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in the post-cold war world*. Connecticut: Kumarian Press.
- Fowler, A. 1992. "Distant obligations: speculations on NGO funding and the global market."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55:9-29.
- Frumkin, P., & M. T. Kim, 2001. "Strategic positioning and the financ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efficiency rewarded in the contributions marketpla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3): 266-275.
- Gready, P. 2013. "Organisational Theories of Change in the Era of Organisational Cosmopolitanism: lessons from ActionAid's human rights-based approach". *Third World Quarterly* 34(8): 1339-1360.

- Gurbin, J. 2008. "(Mis)placing race: Deconstructing my thin televised advertisements for three child sponsorship organizations." Master dissertation. Ottawa: University of Ottawa.
- Harris-Curtis, E. 2003. "Rights-based approaches: issues for NGOs." *Development in Practice* 13(5): 558-564.
- Hart, T. R. 2002. "ePhilanthropy: Using the Internet to build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4): 353-360.
- Hudock, A. 1999. *NGOs and civil society: democracy by proxy?* Cambridge: Polity press.
- Ife, J. 2002. *Community development*. Frenchs Forest: Pearson Education Australia.
- Lewis, D. 2003. "NGOs, Organization Culture, and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0:212-226.
- McDonnell, W. A. and T. P. McDonnell. 1994. "Quality evaluation in the management of child sponsorship programs"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97(4):199-204.
- McGrath, S. 1997. "Giving donors good reason to give agai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2(2):125-135.
- Merrifield, J. 2001. "Learning citizenship." *IDS Working paper*. 158.
- Nguyen, N. 2012. "Women's motivation for sponsoring children with a charity: an exploratory study". Ph.D. Dissertation. Auckland: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Nyamu-Musembi, C., & A. Cornwall. 2004. *What is the "rights-based approach" all about?: perspectives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Brighton: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

- Nyamu-Musembi, C. & S. Musyoki. 2004. *Kenyan civil society perspectives on rights,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Brighton: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OHCHR. 2006.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New York and Geneva: UN.
- Osler, A. and H. Starkey. 2005. *Changing citizenship: Democracy and inclusion in education*.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 Panitch, L., & C. Leys, eds. 2003. *The new imperial challenge*. London: Merlin Press.
- Parekh, B. 2003. "Cosmopolitanism and global citizenship."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01):3-17.
- Plan. 2007. "The Effectiveness of Plan's child centred community development".
https://www.plan.org.au/~media/Documents/Research%20and%20Reports/The_effectiveness_of_Plans_child_centred_community_development.ashx (검색일: 2015.06.02.)
- Plan. 2008. "The development impact of child sponsorship: exploring Plan International's sponsorship-related processes and materials, their effects, and their potential evolution".
- Plan. n.d. <http://plan-international.org/what-you-can-do/sponsor-a-child/sponsor> (접속일: 2015.04.25)
- Power G., M. Maury and S. Maury. 2002. "Operationalising bottom-up learning in international NGOs: barriers and alternatives". *Development in Practice* 12(3-4): 272-284.
- Rosenthal, J. A. 1993. "Outcomes of adop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future of children* 3(1): 77-88.
- Rugendyke, B. 2007. *NGOs as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a globalising world*.

Oxon: Taylor & Francis.

Sargeant, A. & J. Shang. 2011. "Bequest giving: Revisiting donor motivation with dimensional qualitative research". *Psychology & Marketing* 28(10): 980-997.

Smillie, I. 1995. *The alms bazaar: Altruism under fire-non-profit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Intermediate Technology Publications Ltd

UNICEF. n.d. <http://www.unicef.org.au/Donate/Sponsor-a-child.aspx> (접속일: 2015.06.04.)

Vaux, T. 2006. Humanitarian trends and dilemmas. *Development in practice* 16(03-04): 240-254.

Watson, B. & M. Clarke. eds. 2014. *Child Sponsorship: Exploring Pathways to a Brighter Futu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World Vision. n.d. <http://www.wvi.org> (접속일: 2015.04.14.)

<Abstract>

Dilemmas of Ensuring Participation of Donors and Children in Child Sponsorship of Development NGOs

Jae-Eun Noh*

'Participation' has been widely accepted as important for development practice.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usually regarded as optimal agents for putting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into practice. Precedent studies show that individual donors and beneficiaries have been voiceless compared to other stakeholders in NGOs. In recent years, participation of individual supporters has increased ow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though individual donors' active involvement implies a positive change, the principle of enhancing participation of beneficiaries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compromised when NGOs respond to the voice of individual donor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plore dilemmas over the balance between individual donors' participation and beneficiaries'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child sponsorship was selected because of its growth in popularity and its inherent problem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ensions, which can arise from the

* PhD Candidate,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way donors and sponsored children participate in sponsorship. The analysis of reasons for dilemmas over child sponsorship leads to a suggestion that NGOs should engage in continuous self-reflection and fundamental change in lin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for beneficiaries' meaningful participation.

Keywords : Child sponsorship, participation, individual donor, child in a developing country, human rights.

■ 2015. 4. 30 투고; 2015. 6. 4 수정; 2015. 6. 22 게재확정